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7.(수) 12:00
(지 면) 2026. 10. 8.(목) 조간

햇빛소득마을 2차 436개 마을 최종 선정

- 1·2차 공모를 통해 총 523개 마을 선정... 주민 주도 에너지사업 본격화
- 9.17.(목)~10.30.(금) 3차 공모 진행 중, 12월 말 선정결과 발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하였다.

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

* 권역별 결과(선정마을 수/신청마을 수): 경기(25/60), 강원(42/45), 충북(56/70), 충남(47/64), 전북(59/74), 전남광주(106/169), 대구(7/9), 경북(56/65), 경남(34/47), 인천(1/2), 울산(2/2), 제주(1/1)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하여 현재 총 523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마을이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와 금융지원(최대 85%),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계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3차 공모, 9.17.(목)~10.30.(금)로 추가 참여 기회 제공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목)부터 10월 30일(금)까지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기존 공모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기존 공모에서 차기 신청 권고를 받은 마을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현장지원단과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평가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1·2차 공모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 인허가, 금융조달, 계통연계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마을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 활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	책임자	과 장	허정민 (044-205-6850)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5-6851)

